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최선”

이환주 남원시장 민선 7기 1주년 맞아

이환주 남원시장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시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이 끊이지 않고, 고향에서 맘껏 공부하고, 좋은 일자리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천년남원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농민들의 팍팍함이 결실을 맺어 잘사는 농촌, 누구나 살고 싶은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화장품기업 전 문지식센터 조성사업, 가야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 정비사업, 환산대침비지 정비사업,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 기초생활거점사업, 수영장·축구장·테니스장 등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조기개교, 지리산

전기열차 도입해 남원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보배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사업의 위해 관광부원 북문쪽에 추진하고 있는 남원예천 사업을 2020년까지 완성해 새로운 관광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춘향테마파크~함파우소리체험관~김병총시립미술관을 연결하는 2.16km 구간에는 관광형 모노레일을 2021년까지 설치하고,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인근에는 70m 높이 질타위를 세워 예천마당으로 도착하는 1코스(800m)와 함파우소리체험관으로 도착하는 2코스(430m) 질타이어를 설치한다.

농업경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공동브랜드 춘향애인(春香愛人) 활성화, 지역 특화품목육성, 쇠죽한우, 남원추어탕, 남원부각 등 브랜드를 강화하고, 춘향애인 매출 목표를 1,000억원으로 상향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주민복지관 건설, 중심가 환경정비 등 소득증대, 문화복지, 주거환경을 개선으로 더욱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시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임실군, 체감형 농심행정... 삼락농정 앞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추진, 농어촌 소득금고 확대 여성·고령농 지원 농민공익수당 지급도 적극 동참

임실군이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전라북도 삼락농정과 더불어 체감형 농심행정에 주력하고 있다.

민선 7기 2년차 희망농업 정책을 이어가는 심 민 군수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다양한 농업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해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농심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군은 향후 2023년까지 임실군 농업발전을 주도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올해는 200여 가지 농립축산 사업에 대하여 군민들이 누구나 알기 쉽게 단위사업별로 신청방법, 지원기준, 추진절차, 행정사항을 상세하게 수록한 책자를 400부 제작하여 전 읍면 유관 기관에 배부했다.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농가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높이기 위해 올해에는 농어촌 소득금고 지급을 작년보다 300% 확대했다.

대상 및 규모는 47농가에 13억 8천 만원을 농가당 3천만원 한도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또한 농업인의 열악한 문화생활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8000만원을 투자한다.

농업인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한 물론 여성농업인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에 올해부터는 15만원으로 확대·지원해 전년보다 35%나 증가한 1150명이 신청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농번기철 근로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확대·추진한다.

지역주민들의 효용도가 좋아 올해에는 작년보다 51개 마을에서 64개 마을로 대폭 늘었다. 마을에 지원되는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마을당 320 만원을 지원, 여성농업인의 일손부담을 덜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특히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영세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버섯자리 비용을 1200원에서 1400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도내 최초로 시행한 농 병해충 공동방제도 확대했다. 이외에도 농업인 재해부담금을 20%에서 10%로 경감했으며, 야생동물 전기물타리 설치비용 지원사업 등도 전개한다.

아울러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민 공익수당’에 적극 동참한다. 심 군수는 지난 1일 송하진 지사와 도·시군·농민단체 업무협약을 체결, 내년부터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여성친화도시 선포”

순창군, 향토회관서 비전 선언

순창군은 2일 2019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향토회관에서 여성단체 회원 및 읍면지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비전 선포식을 갖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여성친화도시 비전 선포식은 순창군이 2020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군민적 공감대 확산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여성친화도시 순창군’이라는 비전을 전격적으로 선언한 이날 행사는 순창군 여성합창단과 앤젤 댄스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 비전선

언문 낭독, 여성친화도시 결의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오미란 박사의 ‘여성친화도시 이해’, 오한숙희 여성학자의 ‘여성친화도시 리더’라는 특강 등도 마련해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군을 행복과 평등의 키워드 아래 굳건한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겠다”라며, “군민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것은 물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요원 배치

남원시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물놀이 안전관리 집중 대책기간을 정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안전관리요원 배치, 안전시설 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하천, 뱀사골 계곡 등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7개소를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심장제세동기를 비치했다.

또한 산동면 고소암유원지 일원에는 지난 4월 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해 각종 재해상황 및 물놀이 안전수칙을 수시로 전파하고 있으며, 물놀이 인원

이 집중되는 12개소를 중점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7월 1일부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29명을 배치했다.

특히, 소방서와의 협조해 지난달 24과 28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요령과 심장제세동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했다.

또한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24시간 상황관리를 유지하고,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는 119수상구조대와 여름과울소를 오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미생물 상품개발 지원사업 추진

순창군이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황숙주, 이하 진흥원)이 추진하는 테스트베드생산지원사업에 국내 다수기업들이 혜택을 보며, 발효분야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한국형 유용균주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형 유용균주를 활용한 제품생산사업 지원에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를 비롯한 3개 기업이 첫 해 선정된 이래 4차년도까지 39개 사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다.

특히 관내 사업체인 순창문물례식 품과 순창장류 주식회사 등이 혜택

을 보면서 지역 향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적 지원으로 지역 산업기반을 든든하게 지키는 버팀목 역할도 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39개 사업체의 누적 매출실적이 527억원에 달했으며, 44명의 신규고용 인력을 창출하는 등 기업체 안팎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5회차를 맞이한 올해, 진흥원은 이 사업 대상자로 8개 사업체를 선정해 최근 업무협약을 가졌다.

관내 기업체 3곳이 선정된 가운데 순창장류가전제품식품은 향당뇨에 효능이 있는 균주를 사용해 단 것을 꺼려하는 당뇨환자를 타겟으로 한 ‘스테비아 고추장’을 개발하기로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 애향운동본부 신입회원 환영회

“임실군 발전에 앞장 설 수 있는 리더양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일 임실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임실군애향운동본부 신입회원 환영회에서 박재만 본부장이 인제 육성을 통한 임실 발전 의지를 피력한 말이다.

2017년부터 임실군애향운동본부장에 취임한 박재만 본부장은 애향 사업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사람이 중심이라며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양성을 위해 신입회원 모집에 힘 써 왔다.

이번 신입회원은 총 10명으로 부분부장에는 이승계(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장), 박종현(전북연구원초생산협동조합장), 한득수(임실축협장), 최동선(임실농협장), 김태진(민주평통임실군협의회장), 박영재(임실군의원), 이사로는 라승득(前임실군건설과장), 하종원(임실교회 자원봉사자), 박민호(샘고을영농조합 대표), 김윤철(임실군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이 선임됐다.

한편, 박재만 본부장은 총 6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애향소식지 창간, 제1회 애향예술제, 지역 내 봉사활동, 애향장학금 기탁 등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에 앞장 서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에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월 행복센터에서 치매환자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그동안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동지역 어르신들이 주 이용했으며, 반면 읍면 치매환자들은 치매안심센터에 이용하는데 교통문제로 인해 불편함이 컸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4개 읍면(운봉읍·인월면·아영면·산내면) 지역을 대상으로 치매환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치매지원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증치매 환자이며, 작업치료, 운동치료, 현실인식 훈련, 회상치료, 미술치료 등 뇌 기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 받게 된다.

이밖에도 남원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배회가능 어르신들 위한 인식표 발급, 실종방지 지문등록 서비스, 치매치료비 지원 및 조호 물품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가족을 위한 가족교실 운영 등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